

No.20160323-001

제목: 노후 자금이 없습니다

저자: 카키야 미우

페이지수: 295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09월 24일



<내용소개>

누구든 직면할 수 있는 노후 대비 문제를 경쾌하게 풀어낸 소설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는 먼 훗날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겼다. 예전에는 자식이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곧 노후대책이었지만 이제는 베이비붐 세대를 시작으로 자신의 노후는 자기가 준비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가족 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청장년 시절에는 핵가족 제도의 선두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들은 자식에게 신세지지 않고 자립하여 살고자 한다. 부모와 자식뿐 아니라 스스로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소위 '샌드위치 세대'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아츠코도 샌드위치 세대에 해당한다. 그녀는 저축 자금이 급격히 줄어가는 것을 보며 불안에 휩싸인다. 딸의 화려한 결혼식 비용, 남편이 허세를 부리는 바람에 전액 부담하게 된 시아버지의 장례식 비용, 고급 양로원 시설에서 지내는 시어머니에게 매달 송금해야 하는 생활비. 심지어 남편과 아츠코는 거의 동시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 모아뒀던 돈 1200만엔 중 이런 저런 경조사로 돈을 쓰고 보니 남은 돈은 겨우 300만 엔 정도다. 설상가상으로 걱정 속에 결혼시킨 딸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듯하다. 아직 어린애 같기만 한 딸, 결정적인 순간에 허영을 버리지 못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아츠코는 결단을 내린다. 신문과 청소 서비스를 해약하고, 친구에게 절약 기술을 배운다.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매달 9만 엔을 보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기로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츠코의 친구 사키는 은밀한 제안을 한다. 행방불명 상태인 자신의 시어머니 대신 아츠코의 시어머니를 잠시 빌려달라는 것. 처음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순순히 응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등장하고 새로운 제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금사기에 연루되었음을 깨닫는다. 믿었던 친구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됨과 동시에, 아츠코는 고민의 기로에 선다. 과연 그녀는 무사히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개인의 불안함을 사회적 문제로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숨씨가 돋보이는 소설이다. 진심 어린 결혼과 장례 문화, 삶의 보람의 중요성, 인생의 가치관과 인간관계의 의미로 나아간다. 남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현실적인 소재 속에서도 인물들의 재치 있는 대사와 허를 찌르는 시어머니의 캐릭터는 경쾌하게 빛난다.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이야기가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각자의 먼 훗날을 상상해보며 읽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저자소개>

카키야 미우

1959년 효고현에서 태어났다. 소프트웨어 사회 근무를 거쳐 2005년 『회오리 걸』로 소설추리신인상을 수상하며 데뷔하였다. TV 드라마로 만들어진 『리셋』, 『남편의 그녀』 외에 『뉴타운은 저물어가고』, 『당신의 인생, 정리하겠습니다』, 『육아는 이제 졸업합니다』, 『if: 안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피난소』 등 다수 작품이 있다.

No.20160323-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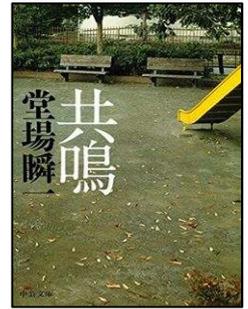
제목: 공명

저자: 도바 슌이치

페이지수: 404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01월 23일



<내용소개>

연령과 세대를 넘어, 함께 성장해가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소설

사회적 문제의 밑바닥에는 대부분 가정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다른 조직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가족'이기 때문이다. 아동 학대, 잘못된 양육 환경, 부모의 불화 등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그 경험들은 한 사람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 때로는 개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부모 자녀 간의 서먹함이 해소되지 않아 소통 단절로 이어지거나, 형제간에 유산으로 큰 싸움이 나거나, 가족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짊어지는 사례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가정 문제에 해당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할아버지와 손자다. 전직 형사이자 현재는 현청에서 방범 어드바이저를 맡고 있는 할아버지 '아소우 카즈마'는 74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력이 좋고 우락부락하다. 하지만 정작 자기 가족을 돌보는 데에는 매우 서툰 사람이기도 하다. 아내는 암으로 죽었고 하나뿐인 딸과는 강한 고집 때문에 소식을 끊고 지냈던 그에게 미션이 생겼다. 대학에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외손자 '쇼'를 갱생시키는 것. 아소우는 다소 유약한 성미의 쇼를 거의 강제로 밖으로 끌어낸다. 마침 아소우에게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 상담이 들어오고, 그는 손자를 파트너로 임명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한다. 가족과 마주하는 방법이 달랐던 할아버지와 손자는 처음엔 일일이 부딪히지만, 티격태격하면서도 차츰 좋은 콤비를 이뤄나간다. 상대에게 반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 마주하게 된다.

이 작품에는 히키코모리, 점차 줄어드는 이웃과의 교류, 인터넷 사회에 대한 의존, 마약류 각성제 등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고, 그 속에 일그러진 가족의 모습이 부각된다.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고뇌에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소설이다. 다루는 사건들은 심각하고 깊이 있는 무거운 것들이지만, 사건을 대하는 등장인물들의 내면에 더 중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독자가 쉽게 읽어나갈 수 있다. 본래 이 소설의 작가는 경찰 수사물과 스포츠물로 유명하다. 주위의 사건을 파헤쳐나간다는 미스터리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한 매개체 일뿐이고, 핵심 주제는 가족 관계의 회복에 있다. 가족의 재생을 위해 함께

성장해나가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를 통해, 제목 '공명'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도바 순이치

1963 년 이바라키현에서 태어났으며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국제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2000 년 가을 『8 년』으로 제 13 회 소설 스바루 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형사 나루사와 료」시리즈, 「경시청 실종과 타카시로 켄고」시리즈, 「형사의 도전 이치노세 타쿠마」 시리즈, 「시오나다 사가」외에 『오단』, 『S 의 계승』, 『라스트 코드』, 「경시청 추적조사계」 시리즈, 「어나더 페이스」, 「조사 1 과 사와무라 케이지」시리즈, 「경시청 범죄피해자 지원과」시리즈, 『복합조사』, 『를』, 『파묻힌 싹』, 『경찰을 돌던 여름』, 『턴오버』 등이 있다.

No.20160323-003

제목: 느리게 읽는 사람을 위한 독서의 기술

저자: 인나미 아츠시

페이지수: 208

장르: 인문,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6년 02월 26일



<내용소개>

책을 읽는 속도가 느려 힘든 사람들에게, 독서의 개념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속독 비법을 알려주는 책

책을 읽는 것에도 공부가 필요할까? 보통 속도로 글을 읽고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평범한 속도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자신이 불편함이나 고충을 느끼지 못할 정도라면 충분하다. 하지만 시험처럼 독해 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나 읽어야 할 양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 속독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질 때가 있다. 한 페이지를 몇 분씩 붙잡고 있어야만 독서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더 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은 정보의 홍수라고 불리는 시대다. 전공서적이거나 가벼운 소설책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보고서, 논문 등 하루 종일 무언가를 보고 읽고 이해해야 하는 것들 투성이다. 이 책은, 이렇듯 책을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린 사람들에게 독서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한 페이지를 읽는데 5분이나 걸렸던 사람이다. 그러나 속독의 비결을 체득하고 연간 700권 이상의 독서량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시중에는 이미 속독법에 대한 책이 많다. 이 책은 보통보다 느리게 읽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삼으며 차별화 하였다.

곰뻥이 독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선 '독서'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느리게 읽는 것은 책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독서란 내용을 100% 머리 속에 넣는 것이 아니다. 책안의 가치 있는 1%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아무리 속독해도 전부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많은 책에서 작은 조각들을 모아,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곧 독서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독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일 같은 시간에 독서 습관 들이기, 비즈니스 서적처럼 핵심이 명확한 책은 뛰어넘기면서 읽기, 1일 1권 읽기 등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책에서 가장 매력적인 한 줄을 선정하여 그 이유와 함께 메모해 두면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저자만의 독자적 방법인 '1라인 에센스'다. 중요한 점만 다시 읽어보는 '1라인 리뷰'와 병행하면 효과가 더 뛰어나다. 한 해에 수백 권에 달하는 책과 만나기 위해서는 목록을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편이 좋다. 책은 오래된 것부터 최근 순으로 진열하고, 3달에 한 번씩 책장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저자는 독서의 요점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해설하였다.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인지 꽤 설득력이 있다. 속도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 책에서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 독서 속도 향상 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목차소개>

시작하며: 왜 「1페이지에 5분」의 느린 독서가가 연700권의 서평가가 될 수 있었을까?

제 1장: 왜 읽는 것이 느릴까? - 프로 리딩의 사고방식

제 2장: 왜 읽을 시간이 없을까? - 월20권의 독서습관을 만드는 방법

제 3장: 왜 읽어도 잊어버릴까? - 독서 체험을 쌓는 비법

제 4장: 대중 훑어보는 것에도 룰이 있다 - 요점을 놓치지 않는 「서치 독서법」

제 5장: 책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헤어질까 - 700권의 선정 관리술

종장: 다독가가 되고 눈에 들어온 것

끝내며: 10년 후에는 「7000권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저자소개>

인나미 아츠시

서평가, 프리랜서 작가, 편집자. 주식회사 Ambeince(アンビエンス) 대표이사.

1962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광고대리점 근무 시절 음악 관련 작가가 되어, 음악잡지 편집장을 거쳐 독립하였다. 「1페이지에 5분」정도로 속도가 매우 느린 독서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맨들에게 인기 있는 웹 매체 「Life Hacker [일본판]」으로 서평란을 담당하게 된 이후, 대량의 책을 빠르게 읽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그 후, 웹 매체 「News Week 일본판」, 「Suzie」, 「WANI BOOKOUT」등에서도 서평을 맡게 되었으며 연간 700권 이상이라는 경이적인 독서량을 자랑하고 있다. 저서로는 『프로 서평가가 가르쳐준다, 전달되는 문장을 쓰는 기술』외에 음악 관련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60323-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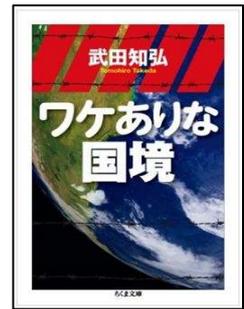
제목: 국경으로 읽는 세계사

저자: 타케다 토모히로

페이지수: 306

장르: 사회

출간일: 2011년 08월 09일



<내용소개>

국경을 통해 세계의 역사와 그 의미를 설명하는 정치사회 입문서

우리나라는 본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한반도'라 불려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바로 위에는 북한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섬이나 마찬가지로의 상태다. 바다를 건너거나 하늘을 통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갈 수 없다. 모든 나라는 자신의 영토를 구분 짓는 국경을 갖고 있고, 같은 대륙 위에서도 국경 지점에 다다르면 검열과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하나의 선이 나라와 나라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우리 나라는 세계 유일의 휴전국가로서 국경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실수로 선을 넘는 것이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국경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그 역사와 의미를 소개한다. 사실 국경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은 인류사에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자기 것과 남의 것을 나누는 것은 곧 소유와 침략, 전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세계를 지배해 온 강대국들은 다른 나라와 지역에 침입하고 전투를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여 왔고, 그들의 힘에 따라 국경선이 변해 왔다. 예를 들어, 건국 당시 미국의 국토는 현재의 1/5규모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주위 국가 및 인디언들과 싸워 이긴 후 그 땅을 차지했고 식민지를 매수함으로써 지금처럼 넓은 영토를 손에 넣게 된 것이다. 저자는 국경에 관한 이야기를 크게 남북아메리카,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일본 열도 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알래스카가 미국령이 된 이유, 캐나다와 미국의 이상한 국경, 하나의 도시이자 국가인 바티칸이 가능한 이유, 유럽 통합 정책으로 인해 유럽 내 국경의 의미가 사라진 날, 국경 공백지대로 남아있는 서 사하라 사막, 티베트·대만의 독립 및 국경 문제, 한반도의 38선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일본열도를 다루는 장에서는 미해결 상태인 북방 영토 문제, 남사제도 문제, 우리나라와 민감하게 대치 중인 독도(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경이란 어떤 국가와 국가가 부딪히는 지점이다. 국민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 책을 읽으면, 세계 각지에 국경을 둘러싼 드라마가 이렇게나 많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 감춰져 있던 이야기를 부담 없이, 가볍게 알아보고 싶

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남북아메리카편

제 2장: 유럽편

제 3장: 중동·아프리카편

제 4장: 아시아·오세아니아편

제 5장: 일본열도편

<저자소개>

타케다 토모히로

1967년 후쿠오카에서 태어났다. 세이난가쿠인대학 경제학부 중퇴 후, 대장성(재정경제부) 직원, 학원 강사, 출판사 근무 등을 거쳐 2000년부터 자유 기고가가 되었다. 국제정세의 심층적인 면, 뒷거래, 역사의 비밀 등 세계의 이면에 관한 저술활동을 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나치스의 발명』, 『전쟁 전의 일본』, 『히틀러의 경제정책』, 『히틀러와 케인즈』, 『이유 있는 일본 경제』 등이 있다.

No.20160323-005

제목: 칭찬할 수록 아이는 망가진다

저자: 에노모토 히로아키

페이지수: 208

장르: 교육

출간일: 2015년 12월 16일



<내용소개>

우리 아이를 상처 받기 쉬운, 의욕적이지 않은, 의지가 약한 어른으로 키우지 않는 방법

최근에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연구와 방법론이 많아졌다. 부모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아이의 행동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자녀가 잘못을 하면 가정 또는 학교에서 적당한 체벌을 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체벌 방식이 잘못되었을 경우 교화 효과는 없고 오히려 아이의 마음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된다는 주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부모와 교사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게 되었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요즘엔 과유불급이란 말을 떠올리게 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나치게 혼내는 것을 삼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가 잘못을 해도 혼내지 않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도 원래 어릴 때는 그런 거라며 방치하는 부모들도 있다. 타인에게 민폐를 끼쳐도 나무라지 않으며, 아이는 무조건 칭찬해줘야 성장하는 존재라고 믿는다.

이 책은 '아이를 칭찬하라'는 말이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적한다. 한 술 더 떠, 칭찬할수록 아이는 망가진다고 강력하게 말한다.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 부족한 젊은이들은 서구에서 유입된 '칭찬하며 키우기 사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1990년대 유입된 새로운 교육관이 일본 사회 특유의 '다정함'과 결합되어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설명한다. 칭찬만으로 자기 긍정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서구의 부모들은 모두 상냥하고 엄청난 인내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큰 오해라고 덧붙인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사랑은 폐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심리학에 기반하여 올바른 훈육법을 제안한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혼내지 않는 엄마가 좋은 엄마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친구 같은 부모가 되더라도 꾸짖어야 할 때는 분명하게 꾸짖고 적절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부성과 모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이든 균형이 중요하다. 이 책은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다는 인식에 반론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아이를 혼내고 엄하게 대하라는 것은 아니다. 부모는 다정함과 엄격함 사이에서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 자녀와 친밀하게 지내며 심리적 일체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은 아동기까지가 적절하다. 사춘기 이후로는 자녀 또한 한 사람의 어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자신의 과도한 애정이 아이를 망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의미에서 읽어볼 만한 책이다.

<목차소개>

서장: 왜 「칭찬하며 키우기」가 신경 쓰이는 것일까

제 1장: 「주의해야 할 것은, 공격하는 것」

제 2장: 미국과 유럽의 부모는 상냥하다, 라는 큰 오해

제 3장: 칭찬해도 자기 긍정감은 자라지 않는다

제 4장: 일본의 부모는 에도 시대부터 다정했다

제 5장: 모성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저자소개>

에노모토 히로아키

심리학 박사. 1955 년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였다. 도시바 근무 후, 도쿄도립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오사카대학 조교수 등을 거쳐 MP 인간과학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으며 산업능률대학 겸임교수이다. 다수의 국립, 사립대에서 가르친 경험을 살려 교육강연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에서 내려다 보는 듯한 시선」의 구조』등이 있다.

No.20160323-006

제목: '비(非)리얼충'을 위한 심리학: 충실한 현실 생활을 위한 심리학 힌트

저자: 사쿠라 쓰요시

페이지수: 320

장르: 심리

출간일: 2014년 02월 24일



<내용소개>

현실에 충실한 생활을 하고 싶은 '비 리얼충' 작가가 쓴 색다른 심리학 에세이

일본에는 '비(非)리얼충'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한다. 연애와 일 같은 현실 생활, 즉 '리얼'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타쿠나 히키코모리와는 차이가 있다.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감상, 게임 등 오타쿠 계열의 취미에 빠지는 경향이 강하지만,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이들도 상당하므로 단순히 취미 활동만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대인활동을 피하지만 모두가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온라인 상의 대인활동, 블로그와 게시판에 집필하는 것은 즐기며 화면을 통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 한다. 즉, 현실 생활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를 제대로 만들어어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의 표지에는 크게 '비 리얼충 심리학'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사람은 옳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문구도 인상적이다. 자칭 비 리얼충인 저자가 약자의 시점에서 리얼충의 생활을 심리학과 엮어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자신의 약한 마음을 들여다 보기 위해, 강한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한다. 8개 장을 구성하는 총 44개의 항목 제목은 사회·인지 심리학적 용어와 법칙 명이다. 주위의 반대나 장애물에 부딪힐 때 더욱 원하게 되는 반발 효과, 타인에게 인정받고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싶은 욕구, 겉보기에 흔들리기 쉬운 마음,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심리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전문가의 감수까지 거쳤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다. 곳곳에 등장하는 자학 개그는 공감과 친밀감을 더해 주는 작용을 한다. 현실적인 것들에 충실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처럼 세상 속에 섞여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변해야 할 지 알고 싶다는 개인의 바람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솔직함과 간절함이 느껴진다.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보자. 성공하면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면 지금껏 두려워했던 새로운 환경에도 도전할 수 있다. 실패를 겪더라도 그 고통을 승화하여 벽을 깨고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면 나라는 존재에게도 희소가치가 붙게 된다고 격려한다.

저자에게 심리학은 '세상에 진출하기 위한 무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수수께끼였던 타인의 마음

을 심리학을 통해 바라보자, 다른 이는 물론 자기의 마음까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설령 '리얼충'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세상 속에서 좌절을 겪고 다시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 이 책을 통해 작은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

<목차소개>

- 제 1장: 반발하는 마음
- 제 2장: 인정받고 싶은 마음
- 제 3장: 겉보기에 약한 마음
- 제 4장: 굼뜬 마음
- 제 5장: 물들기 쉬운 마음
- 제 6장: 거절할 수 없는 마음
- 제 7장: 금방 뜨거워지는 마음
- 제 8장: 두근거리는 마음

<저자소개>

사쿠라 쯔요시

작가. 1976년 시즈오카현에서 태어났다. 주쿄 대학 중퇴 후, 개그맨을 목표로 상경하였으나 바로 좌절.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다가 여성에게 차인 것을 계기로,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해외로 향했다. 귀국 후, 블로그에 아프리카와 인도 등의 여행기를 담으면서 금세 온라인에서 인기 폭발. 처녀작인 『인도 따위 다시 가겠냐! 멍청이!!...하지만 또 가고 싶을지도』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가가 된 후에는 『삼국지남』, 『느끼는 과학』, 『아프리카 따위 다시 가겠냐! 멍청이!!하지만 또 가고 싶을지도』, 『나는 절대 탐정에 어울리지 않아』 등 다수의 저작을 세상에 내보였으나,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늘지 않아 변함없이 히키코모리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 라디오 「사쿠라 통신」 <http://sakuratsushin.com/>

No.20160323-007

제목: '늙음'을 향한 걸음

저자: 구로이 센지

페이지수: 201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5년 06월 12일



<내용소개>

누구나 겪게 되는 '나이 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책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늙는다. 신체 부위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계속 노화하는 것이 사람이다. 모두 겪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 슬퍼지고, 사회에서는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편이하게 나뉘는데, 전자는 '인생의 연륜을 바탕으로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며 후자는 '나이를 빌미로 연장자 대접만을 바라는 막무가내인 사람'이다. 나이를 더 먹었다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극단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살아온 세월에 걸맞은 깊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위에 대한 고민과 앞날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 부지런함을 갖춰야 한다.

이 책은 저자가 198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쓴 글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그가 50대였던 때부터 80대의 노인이 되기까지, 약 30년의 시간과 사색이 이 한 권에 담겨있다. 나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다뤘다고 보다는, 한 인간이 조금씩 노년을 향해 가는 과정과 앞으로의 나날에 대한 전망을 나타낸 글이라고 할 수 있다. 평범한 생활의 일부, 지나온 삶과 곧 다가올 삶의 조각들에 대하여 진중하게 살펴본다. 작가처럼, 애매한 중년과 장년 사이 그리고 노년에 접어드는 '초로'의 시작은 어디일까 한 번쯤 고민해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신체적·정신적 사회 활동이 가능한 기간이 연장된 시대라면 더욱 모호해진다. 하나 둘 또래들이 세상을 등지기 시작하면 자신과 비슷한 때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오래된 소품이나 익숙한 거리 구석구석에서 작은 즐거움을 발견해내기도 한다. 예전엔 미처 몰랐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알아차리게 되는 사실들도 있다. 물론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쓸쓸함과 아쉬움도 진하게 배어난다. 이 책에 수록된 38편의 짧은 글에는, 한 남자가 노년을 향해 걸어가며 그 빈자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탐구로 채워가는 모습이 드러난다.

저자는 나이가 들며 늙어가는 시절이 삶에서 가장 윤택한 계절이라 말한다. 젊어서 뿌려놓은 것들을 거두는 인생의 수확기에 해당한다. 노년의 저자가 찾아낸 '늙음'에 대한 풍경은 때로는 익숙하고 때로는 신선하게 다가올 것이다. 결실이 있는 노년의 생활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을 마련해줄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늙음의 결실

(초로는 몇 살인가 / 쇼와 한 자릿수 세대의 행방 / 오래 사는 방법 등)

제 2장: 늙은이의 즐거움

(어느 오래된 옷걸이 / 계절의 행방 / 거리의 얼굴, 가게의 소리 등)

제 3장: 늙은이의 시선

(남과 여의 차이 / 어떤 날의 여자들 / 손가락 끝의 황폐함 등)

제 4장: 늙은이와 일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가-『일한다는 것』 / 바람과 창문 / 밤의 힘 등)

제 5장: 늙음의 공간

(집에 대한 호소 / 가족과 개인실 / 목욕탕의 방법 등)

<저자소개>

구로이 센지

1932 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 졸업 후, 1970 년 『시간』으로 예술선장신인상, 1984 년 『군서』로 다니자키 준이치로상, 1995 년 『커피콜』로 요미우리문학상, 2001 년 『날개와 날개』로 마이니치예술상, 2006 년 『1 일 꿈의 선반』으로 노마문예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달리는 가족』, 『5 월 순력』, 『봄의 이정표』, 『잠자는 안개에』, 『자화상과의 대화』, 『높게 손을 흔드는 날』, 『늙음의 형태』, 『시대의 과실』, 『산책 한 걸음』, 『늙은이의 혼잣말』, 『살아간다는 것』, 『떠돌다 오래된 토지 새로운 장소』, 『늙음의 정취』 등이 있다.

No.20160323-008

제목: 어른인 상대방을 가르치는 기술

저자: 세키네 마사히로

페이지수: 192

장르: 처세

출간일: 2015년 11월 02일



<내용소개>

가르쳐야 할 대상이 '어른'일 때, 서로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지도 방법 소개서

인간은 평생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며 살아간다. 가정, 학교, 동아리, 회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인 조직 어디에서나 겪게 되는 일이다. 집이나 동호회는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최근에는 부모도 육아방식에 대해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서 관련 적과 부모학교 같은 모임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학교는 전문적으로 교육 받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곳이라서 상관 없지만, 가장 곤란한 곳이 바로 '회사'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웬만큼 경력이 있고 해당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람이 신입을 가르친다. 오직 선배라는 이유 때문이다.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타인에게 가르쳐주려 하기 때문에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가르치는 선배와 배우는 후배 모두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 책은 가르쳐야 할 대상이 다 큰 '어른'일 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어른은 아이와 다르다. 살아온 세월이 있고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확립되어 있다. 자존심 때문에 타인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바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자신보다 나이와 경험이 많은 부하를 가르치거나 이성을 가르쳐야 할 때에는 부수적으로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이 더욱 늘어난다. 요즘에는 정규직, 파견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여러 고용형태가 존재하고, 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 졸업생뿐 아니라 외국인, 경력자도 활발하게 채용한다. 그런데 다양한 입장과 배경을 가진 후배들을 가르쳐야 할 선배는 효율적인 업무 지도 방식에 대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자는 '가르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한다. 올바른 지도방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가르치는 것에 능숙한 사람들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지도 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하며 수정하고, 몸에 익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각 장의 첫 부분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제시되고 저자가 이에 대해 설명한 후,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항목은 2~4쪽의 짧은 분량이고 핵심 부분이 눈에 잘 들어오도록 강조되어 있으므로 틈틈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성인 대 성인으로 가르치는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와 나름의 공부가 필요하다. 조직

내에서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이 책은 '가르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올바른 「가르치는 법」이란 무엇?
- 제 2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방법
- 제 3장: 명령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 제 4장: 일방적으로 설명해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 제 5장: 빨리 회사에 익숙해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 제 6장: 프라이드가 있는 성인을 고분고분하게 만들려면
- 제 7장: 「마음이 맞지 않아서」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제 8장: 「혼자」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제 9장: 바쁜 도중 가르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 아니다

<저자소개>

세키네 마사히로

1972년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남. 서던미시시피 (Southern Mississippi)대학 졸업 후, 두 회사에서 영업과 강사 경험, 2005년 연수회사 런웰 (Learn Well)을 설립하였다. 2010년에는 일을 하며 도쿄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경영학습론」의 나카하라 연구실에 참가, 신입 조직 적응 및 OJT 에 대해 연구하였다. 2013년 학제정보학 석사 취득. 기업 연수에서 전문 분야는 「가르치는 방법」(현장에서 OJT 및 사내 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주요 연수로는 닛케이 비즈니스 스쿨 「OJT 지도 스킬 연수」, NBS 온라인 강좌 「부하후배가 성장한다! 능숙하게 업무 가르치는 법 입문」, 다이아몬드사 「연수개발 랩」, 메이커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멘토(신입을 가르치는 선배 사원)연수」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잘 가르치는 것은 잘 배우는 것』, 『이것만은 파악해두고 싶은 업무 지도 방법』, 『만화로 알기 쉽게 배우는 업무 지도 방법』 등이 있다

No.20160323-009

제목: 살살, 조심조심

저자: 타키무라 유우코(글), 마루야마 아야코(그림)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02월 25일



<내용소개>

어린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따스하게 지켜보는 이야기입니다.

세 살배기 여자아이 릿짱은 엄마를 따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쁜 아침시간에는 엄마를 돕기 위해 우유 컵을 들고 가는데, 그만 서두르다가 우유를 바닥에 흘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조심해서 살살 들고 가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이번엔 고양이에겐 아침 우유를 주려고 데리고 오려는데, 뒤에서 움켜잡는 바람에 놀란 고양이가 도망가버렸습니다. 엄마는 조심해서 살살 데려와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실수를 계속하던 릿짱이 하루 이틀 지나며 어느새 '살살'하는 것에 능숙해집니다. 아기를 만질 때도 울거나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비누방울을 붙여 올릴 때도 살살, 오렌지 주스도 테이블까지 흘리지 않고 가져가는 데 성공합니다.

아이들은 처음 해보는 일은 무엇이든 서툴기에 이런 저런 실수도 많이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꾸짖는 대신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다음에 또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잘 하지 못하던 것을 점점 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릿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따스하게 지켜보던 엄마처럼 말입니다. 이 그림책을 통해 아이는 실수에 굴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용기를, 부모는 아이를 믿고 다독이는 격려의 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본문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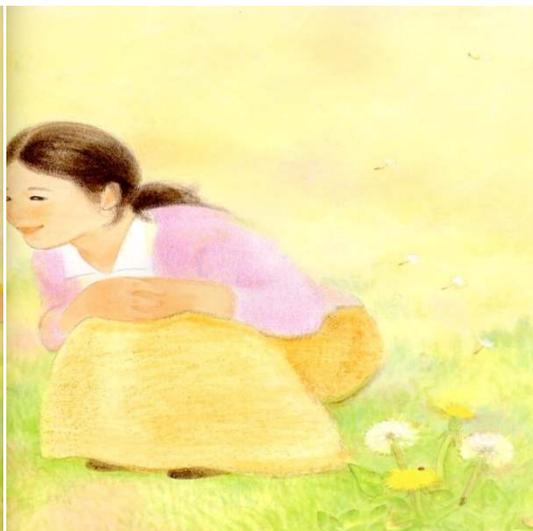
「りっちゃんも やる！」
 ふっ! ふっ!!
 うまくできません。
 「ふーっと そっと やってごらん」
 ママが いいました。
 ふっ! ふっ!!
 やっぱり うまくできません。



りっちゃんは ひろちゃんの シャボンだまを
 ジーツと みていました。
 ひろちゃんの シャボンだまは
 おそらの ずーっと うえまで あがっていきます。



「ママの かぜさん そっと とどきましたかー？」
 「はい! とどきましたー!」
 こんどは りっちゃんが ママの ほっぺに
 ふーっと そっと いきを ふきました。
 「りっちゃんの かぜさん そっと とどきましたかー？」
 「はい! とどきましたー!」
 ママも にっこり わらいました。



<저자소개>

타키무라 유우코(글)

1968년 치바현에서 태어났다. 세 아이의 엄마로서 육아를 하며, 일상을 바탕으로 그림책을 만들어 가정에서 즐기고 있다. 이 작품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치바현에 거주 중이다. 그림책 작품 『조금만』, 『손바닥』이 있다.

마루야마 아야코(그림)

1982년 나가노현에서 태어났다. 타마미술대학 그래픽디자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민들레의 배』로 그림책에 데뷔하였다. 주요 그림책으로는 『한밤중의 화장실』, 『혼자서 친구 집에서 자기』, 『눈이 오는 날 집에서』, 그림을 담당한 책으로는 『새 신이 생겼어요』, 『과자 나라의 발레리나』, 『꽃놀이』, 『안개 속의 도토리』등이 있다.

No.20160323-010

제목: 박사님의 이상한 수영장

저자: 나카무라 노리오

페이지수: 34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5년 09월 01일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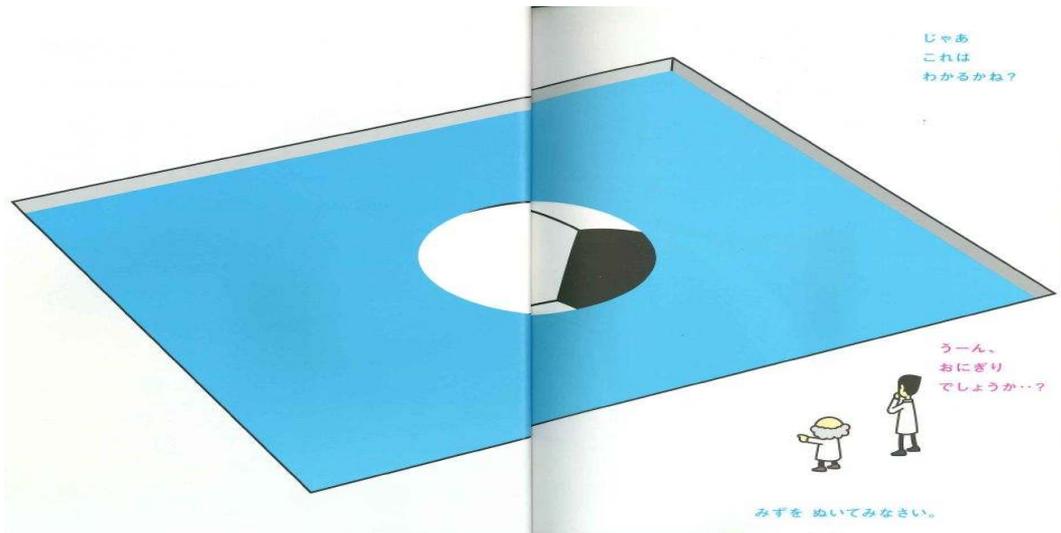
무엇이든 안에 넣기만 하면 크게 변하는, 이상한 수영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사님은 조수와 함께 매일 연구를 합니다. 어느 날, 박사님은 새로운 발명품을 완성하여 조수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그 안에 넣기만 하면 크게 변하는 이상한 수영장이었습니다. 박사는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이것저것 넣어 봅니다. 주먹밥처럼 보였던 것은 수영장 물을 빼고 보니 축구공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나뭇가지 같았던 것은 장수풍뎅이였습니다. 둥그렁고 빨간 두개의 덩어리는 사과와 문어, 도시락 통을 닮은 물체는 노란 장화였습니다. 신난 박사님은 마침내 수영장 안에 직접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덩치가 너무 커져 연구실 안에 들어올 수조차 없게 된 박사님. 그는 홀로 연구실에 남은 조수에게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달라고 소리칩니다. 대체 박사님은 어떻게 그 수영장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조수는 커져버린 것들을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이와 함께 책장을 넘기면서, 수영장 안에 있는 물체가 어떤 것일지 알아 맞추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물의 일부분만 드러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점점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간접적으로 과학적 호기심도 키울 수 있습니다. 깔끔한 그림체가 매력적인 그림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나카무라 노리오

가나자와현 가와사키시에서 태어났으며 일본대학예술학부 디자인학과를 졸업하였다. (주)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를 거쳐 독립하였다. 광고, 디지털 콘텐츠, 서적, 영상, 장난감 등의 기획과 디자인 등을 해왔다. 대표작으로 PlayStation 「I.Q.」 기획과 아트 디렉션, 아트 유닛 「메이와 덴키」의 그래픽디자인, NHK 민나노 우타 「테토 펫텐송」의 애니메이션 등. 저서로는 『내맘대로 광고』 등이 있다.